

중소기업 홈쇼핑 진출 지원 확대

송하진 도지사·심민 임실군수, 민생현장 방문

전북도, 내달 5일까지 7개사 추가 모집... 방송 비용 최대 1500만원 지원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송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전북도가 추가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을 적극 돕고 나섰다.

도는 26일 온라인쇼핑으로 소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 7개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과 연계한 이번 사업에는 방송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전북도의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홈쇼핑 방송지원을 받은 (주)아리올마켓의 '굳지 않는 떡' 제품은 첫 방송부터 매진을 기록한 뒤, 정규방송으로 편성돼 지난해 홈앤쇼핑에서 방송한 제품 중에 가장 많은 누적 매출(24억 원)을 기록, '올해의 HIT 중소기업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선정된 7개 사 중에는 태인명장이 오는 28일 첫 주자로 공영홈쇼핑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태인명장은 정음의 3대째 전통 장류 명가로, 대표상품 '장순'가 발효생 연일청국장'을 판매할 예정이다.

HACCP 인증 완료는 물론 '2020년 전

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청국장 품목 중 매출 1위를 달성한 바 있어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홈쇼핑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북기업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에도 꾸준한 판매로 이어질길 바라고, 추가로 확보한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에 우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 방송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북도(280-3224) 또는, 경제통상진흥원(711-2031)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소외계층 위한 밀반찬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 추진... 독거노인 등 150세대에 전달

심민 임실군수가 송하진 도지사와 26일 민생현장 방문으로 임실군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이날 송하진 지사와 김광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소외계층에 전달할 밀반찬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한국서부발전(주) 후원사업으로 전개해온 '코로나19 극복 1식2조 선순환 프로젝트'로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품으로 밀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50세대에 전달된 밀반찬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역 내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됐다.

심민 군수는 "비록 작은 밀반찬 나



송하진 도지사가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26일 임실군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밀반찬 꾸러미 포장 활동을 갖고 있다.

높이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지친 분들이 입맛을 찾고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대상자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방안 모색

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한 농촌교육의 마스터플랜은? 주제 정책세미나 가져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26일 전북삼라로컬마켓 세미나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농촌교육의 마스터플랜은?'이라는 주제로 제7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사업' 담당 기관인 전북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농촌교육에 대한 고민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전남 곡성군이 농촌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행정·교육청·민간 3자가 협력해 군민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은, 교육 마스터플랜 실행 연합형 독립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사례가 특별주제로 소개됐다.

이날, 특별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본부장은 "공무원과 교사, 민간전문가 15명이 근무 중인 미래교육재단은 유아·초등 '꿈놀자센터(창의교육)부터 청소년 '꿈기움센터(자기주도 성장)', 성인 '곡성형 사회교육(시민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곡성창의교육 3.0'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



능한 생태계 구축, ▲곡성교육 통합 플랫폼 정착, ▲곡성형 창의교육 강화, ▲곡성형 사회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가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정영 전북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장은 "전북에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등의 노력도 하고 있지만, 전교생 10~50명 수준인 농촌 지역 교육 여건이 매우 취약한게 가장 문제"라며 "학교가 없으면 농촌과 마을이 붕괴되는 바람과 후, 돌봄, 진로체험 등 활동들은 지자체와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병훈 부안교육지원청 장학관은 "표준화된 교과서는 개별 지역과 학생의 특수한 조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학교라는 공간은 건축과 시설의 많은 요소들이 체험에 부적합하

며, 또래로부터 배우고 기를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할 중간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진섭 보절중학교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 유료회원 100명으로 활동 중인 남원교육연구소의 성과를 소개하고, "아이들의 삶과 하나 되는 교육을 위해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장수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소년인문학여행, 청소년포럼,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청바지) 등이다, 소설벤처경영대회 청소년부분 우수상(2016년), 농촌 청년·청소년 정착 지원과 방안을 연구한 백화여고 논문(2017년) 등 활동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에 근거, "장수군에향교교육진흥재단(100억)이 설립 필요성"을 전했다.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은 황만길 군장대 교수는 "그간 전북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산되고 분절된 마을 교육을 넘어, 지자체와 교육청 및 민간이 협력하는 농촌 지역 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다양한 영역 자활기금 사업 추진

3년 동안 9억원 지원... 자활기업·영농사업단 평균 20% 매출 증대

전북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통합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도는 자활기업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 지원은 물론, 각종 시설지원과 장비 임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활기업 지원에 몰표를 뜨는 한편, 영농사업에는 시설현대화 지원과 친환경 영농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전주지역 자활기업인 전주세탁나라의 1개소와 김제지역 영농사업단 새희망영농의 2개소에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전주지역 사업단 참참떡볶이의 12개소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낮은 장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강, 상품을 균일화 하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매출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컨설팅 사업은 자활기업 창업, 경영,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디자인 개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9억 원의 자활기금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자활기업과 영농사업단에서는 매출액이 평균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자활기금 사업은 광역자활센터와 지역 자활센터간 파트너십 형성과 협업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있다"며 "자활생산품 품질개선·매출향상·자활기업을 통한 탈수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시·도 연구원 대기분야 숙련도시험평가' 유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전국 시·도 연구원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를 전북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원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숙련도 시험평가에는 호남권·충청권·영남권 등 남부권역 10개 기관 연구원이 참여한다.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며, 전국 시·도 보

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법정기관을 포함해 환경 측정기기 검사기관 및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등 전국 약 200개소에 대해 측정 분석능력 향상과 분석 결과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다.

올해 시험평가는 주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2곳에서 개최된다.

대기 숙련도 시험평가는 시료 채취 숙련도, 시료 채취과정, 누출 확인 시험 등 총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는

하며, 지난해에도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아 '적합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를 전북에서 유치함에 따라, 전국 남부권 10개 연구원 50여 명이 방문하므로 전북연구원의 최상위 숙련도를 널리 알리고, 전북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